

줄은 아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정남은 기성읍니로부터 도라온후 슈일지니여부터 신기불평하여 셔셔  
 로 오한번열이나는지라 정옥조의부々は 대단념려하나 학질기운이잇셔 그리  
 흠인가하고 슈삼일지니이면 쾌복되여 경성으로 곶을나가리라 하였더니 몇칠  
 을지니되 증시셔붓지못흔지라 흠일업시 읍니로사름을보니여 의원을청하여  
 보이미 의원은 학질이냐 그러치안이하면 감기스운이라고 진찰하고 약방문을  
 니여주며 일이협만 권복하면 나으리라하고 도라간후 그리날 이르러는더  
 옥병이더하여 열기도 심흔지라 또 의스를청하여보인후 히열제(解熱劑)를런  
 복식이다라

그후 이삼일을지니이나 병세더욱침중하여 약은셔도 일덱의효험이업고 셔셔  
 은아침보다중하여 오날은어제보다 열기도하여 스심도에 니르렀더라 어린아  
 히의몸은 점々흔침하여 두동 신열 오한이 빈삭히왕리하여 입에는백티가가  
 득하여 음식은조곰도 티이지안이하고 눈을감으면 섬어를발하는지라 정옥조  
 의부々は 크게근심하여 더욱이 경주는 밤이면 잠을일이지못하고 간호하여  
 하늘을올어려 정남의병이 쾌복되기를 축원한다 정옥조는 생각하되 이곳식골  
 의원으로는 이병을만족히 곳칠기망이업스니 찰하리셔을잇는 단골의원을불너  
 니러보이는것이 나으리라하여 턴보를써워 서울의원을 청하였더니 답던니에

『금야출발 명일도착이라 하였더라』

이날도 아참부터 그곳의원이 두사람이나와서 정남의병세를 서로의론하여 진  
 찰후 두의스는 종종한방에일이러

『지금병을보시니 당신싱각은 엇더하시오』

『글세 로형에게 처음시초부터 오날까지 병조의지닐경과를 드렸고 또지금  
 니손으로 셔셔이 집증을하여보니 뇌싱각에는 암만하여도 장감인것갓소』

『올치나도 그런듯흔의심이잇셔오 그러나 이산성에잇셔々 장감이날리는업  
 고 지금기성읍니에서는 그병이더러 당기는모양이닛가 어나셔엇더케하여셔  
 그병이 전염되엇는지 엇더튼지 당신싱각과 니마음이 모다일치흔모양이니  
 그러면 아조장감으로 집증을합시다』

『병중제가 정녕나는 장감으로만 알고잇는디……』

『정녕장감인줄을알면 셔박스를청하여와야 하지안겟소 요스이마참 읍니에  
 나려와셔잇스니 장감에는 그셔박스안이면 속히곳칠도리가업지』

『아—셔박스가 지금나려와셔잇나 그러면 우리가 공연히 이만쓰고 잇슬것  
 이안이라 그셔박스의 혈청주스(血清注射)하는법을 씻스면 한번에 대강났  
 지안겟소』

『그런치 그러면 곳정협판과 의론하고 병조의혈액(血液)을 조곰엇어가지고





니가 그셔박스집으로 가서 시험을 하여 달라고 하겠소 셔박스다려 감히와셔  
 현미경으로 시험하여달나 홀슈야잇소』  
 하며 두의스는 다시 병실로 드러오니라

데삼십팔회

의원두사람은 한가지로 정남의병실에 드러가니 안방에는 정옥주의부부가셔  
 로향야 슈심에싸이여 안젓는디 두의원은 정옥조를 향야말흔다

『지금도 저데병환을 보왔습시다만은 요스이 몇철을두고 병을진찰하온즉 암  
 만싱각야도 장감갓습시다 그런연고로 오늘날은 령감씩셔 보시다싹히 다른  
 의원 이사람까지 다리고와셔 진찰을하엿습시다만은 제의견과갓치 부합하  
 니가 장감인것은 분명하오이다』

정옥주는 안히를향야 눈스살을찌푸리며

『장감이야요 그러면 치료하기가 대단어렵겟소구려 더구나 이런어린아히가  
 그런중병이 드러서……』

『안이올시다 그닥지 심려할것은 업습시다 장감인줄만알면 치료할지료가  
 잇스닛가 다른열병과는 달나셔 도로혀 고치기쉽습시다 저의들은 그치료하  
 는방법에 서투릅시다만은 셔박스의 장감고치는법은 참 신출귀몰하닛가 우  
 리 의학회에서는 정말유명하오이다 주스한번이면 장감치고는 안이났는

일이업시오 그런디 그의스가 지금맛참 송도별장에서 한양하고잇스닛가 정  
 말 이런조흔과희는 업습시다 령감씩셔 만일승락만하시면 한번 그셔박스를  
 되시고오겟습시다만은 령감의향이엇더하신지오』

정옥주는 이말을듯고 기거하야

『아— 그러하면 한번청하야다보앗스면 정말다행하겟소 셔박스가 맛참 여기  
 나려와셔잇기가 다행이오그러어려우시드리도 한번힘써주시면 좋겟습시다』  
 『네 그러할실의향이 계시면 지금으로가셔 그셔박스를되시고 오겟습시다』  
 셔박스라는말을듯고 문득싱각나는디잇는지 홀연 의식이변하는 경주는강잉  
 히 티도를 침착이하야 의원에게묻는다

『그셔박스라고 하시는데는 일홈은무엇이라고 하는양반인가요』  
 의원은 다시경주를향하야

『네 그량반의 일홈이오닛가 성명은 셔병삼씨라고 이르는데 여려히전에 동  
 경에유학하야 의술을연구하다가 덕국으로건너가셔 다시삼년동안을 세균학  
 (細菌學)을 전문으로 연구하야셔 그곳에서 박스의칭호를 얻어가지고 월전  
 에귀국하엿는디 우리의학계셔는 그중고명하게 아는사람이올시다』

경주는 이말듯기를다함의 삼쌍놀니여 부르지는소리가 입밖게나오려하다가  
 간신히진정하엿스나 얼골은홍빛과 갓치되얏는지라 이썩경주가 만일무병하야



평상사름 갖출 것이면 곳 보는 사름으로 하 여곰 의심을 일으키지 안이치 못하얏  
슬지라 그러나 요사이 저귀의몸에도 신양이 있거니와 그아달의병으로 하야 주  
야로로심초사흔결과로 얼골에혈척은 것치고푸르고 흰빛해 저연이 감추어젼  
는고로 다행이라인은 그니용을 아지 못하얏더라

경조는 이윽히 마음을 진정하후 남편을 향하여 원정이 나는 것갓치

『여보시오 령감 지금 그셔박스라하는 의원을 청하 여셔 퇴여도 도갓지오만은  
조곰참으면 니일은 우리집단골의원이 올터이니 그셔서지만 참아셔하시면  
엇더할가요 그셔박스라하는 의원은 주스(注射)를 하 여셔 병을 고친다니  
나는 엇지히셔그런지 무셔운 생각이나오』

정옥조는 아모말업서 안져잇는디 그엽해안져잇던 의스한사름이 경조의하는  
말을 변명하노라고

『여보십시오 그러치안습니다 혈청주스(血清注射)라 하는것은 결단코 무셔  
운것도안이고 워터할것도 안이올시다 셔투른사름은 혹시주스를 잘 못하 여  
정맥(靜脈)을 주스하야 위험할일이 업는것도 안이지오만은 셔박스의 주스  
하는법은 러럭만치도 녀려할것은 업습니다 주스한번이면 반다시 병이 낫는  
것은 저의가 담보라도 하갓습니다 전일에 장갑병을 치료하던방법으로 말습  
하면 이약을 써보앗다가 그약이 맞지안이하면 저약도 써보고하 여셔 병을 집증

못하 여셔 갈광질광하얏지오만은 이셔박스의 혈청주스하는방법은 정말습으  
로 신출귀몰하터이니 조곰이라도 의심할것 업슬뿐안이라 장갑이라하는  
병은 본리가 세균(細菌)의작란으로 나느병이 낫가 이박스의 여려히 세균견  
문헌슈단으로 손만다이면 나를결 그리념려하심닛가 조곰이라도 녀려가잇  
스면 무슨사름으로 권할리가잇습닛가 두말습마시고 셔박스에게 이병은맛  
기여바리십시오』

정옥조는 이셔야비로소 입을여려

『아— 그러코여부가잇소 녀저라하는사름은 본리마음이 약한사름이라 무셔  
운줄로만아나 확실히집증하인 이상에야 무슨념려가 잇겟소』

데삼십구회

정옥조는 경조를 향하야

『부인은 무엇을 그닥지심려하시오 분명히 병이나올증거가잇스면 그외에다  
힘이 엇의잇겟소 셔올셔 우리단골의원이 온다하드리도 괴필코나을는지 못  
나을는지알슈업는디 다행히 이러하 고명하신 의스가게서다하셔니 그런의  
스를 청하 여다가 보지안이하고 엇지하단말이오』

경조는 속이엇던얼골을 들지도안이하고 괴운업는목소리로

『네—……』



못하 여셔 갈광질광하얏지오만은 이셔박스의 혈청주스하는방법은 정말습으  
로 신출귀몰하터이니 조곰이라도 의심할것 업슬뿐안이라 장갑이라하는  
병은 본리가 세균(細菌)의작란으로 나느병이 낫가 이박스의 여려히 세균견  
문헌슈단으로 손만다이면 나를결 그리념려하심닛가 조곰이라도 녀려가잇  
스면 무슨사름으로 권할리가잇습닛가 두말습마시고 셔박스에게 이병은맛  
기여바리십시오』

『아— 그러코여부가잇소 녀저라하는사름은 본리마음이 약한사름이라 무셔  
운줄로만아나 확실히집증하인 이상에야 무슨념려가 잇겟소』

데삼십구회

정옥조는 경조를 향하야

『부인은 무엇을 그닥지심려하시오 분명히 병이나올증거가잇스면 그외에다  
힘이 엇의잇겟소 셔올셔 우리단골의원이 온다하드리도 괴필코나을는지 못  
나을는지알슈업는디 다행히 이러하 고명하신 의스가게서다하셔니 그런의  
스를 청하 여다가 보지안이하고 엇지하단말이오』

경조는 속이엇던얼골을 들지도안이하고 괴운업는목소리로

『네—……』



정육조는 거듭하여

『여보 아히의병이 지금싱스가 죠석에달니엿거늘 부인은 혈청유스(血清注射)를 할기실여하니 그러하면 엿지흥조는 소견이오 아히를 죽일장덩으로 그리하시오 부인의마음인들 그럴리야잇겟소』

경조는 속이엿던 얼골을 비로소들며

『안이오 그럴리가잇겟습닛가 무슨약이던지하여 낫기만하면요치오』

두사람의의스는 비로소 이말을듯고 반기여말흐다

『그러하면 그셔박스를 청하여 곳오겟습니다 그러하나 그박스를 청하여오려 하면 병인의 혈액(血液)을 조금엇어가지고가서 그피를 시험하여본후에 진정장감인줄을알면 모로거니와 그것치안이하면 셔박스를 청치못하겠소오니 조데의피를늬여서 저의가가지고온 귀게에너허가지고가면 대단조겟습니다』  
『하며 두의원은 귀게를가지고 정남의염해일으려 손가락을질너 피를늬여가지고』

『인제조데의 혈액(血液)을 밧앗스닛가 지금으로 곳기성읍너 셔병삼의별장으로가서 시험하여본후 정말장감일것갓흐면 그셔박스를 이리로되시고 오겟습니다』

『참이러케 근념하여주시니 너모도 불안하오이다』

의스기도라잔후에 정육조는 적이안심하여 다시 그안히얼골을 치여다보며

『부인은아죽도 마음이노이지 안이하나보구려 내싱각갓히셔는 정남의병은 밧서고친것갓치 마음이노이고 조곰도 걱정이안이되는데 웨그리 걱정스려운얼골을 짓고잇소』

『네—글세공연이 유스한다소리가 무셔위셔그리요 그것치만 시험을히보아서 장감이안인줄알면은 유스할일은 업겠지오』  
정육조는 눈사살을썩호리며

『그야그러하지 장감이안이면 그셔박스라하는사람이 당초에 을싸들도업고왔다하드리도 소용업는일이 안이오』

『안이 그러면 장감이안이면 토흐련만……』  
『하며 입으로말하는것을 정육조는말셔듯고』

『허々 지금하는말이 무슨지각업는말이오 나는도로허 장감이면 토켓스나만 일장감이안이면 혈청유스도 흡슈업고 할일업슬모양이니 내싱각에는 장감으로만 진찰이되얏스면 토켓소 그러고 혈청유스라하는것은 조곰도 치료법이 위티하지안인것을 공연이 그닥지 심려를하느구려』  
경조는 잔신이 고기를들어

『나는어린히만 구할것갓흐면 아모려나 상관이업습니다 어셔셔박스라하』



논의원이 오셨스면 도켓습니다」  
 하며 말하논경조는 얼골에 무슴결단을 하논모양이보이나 정옥조는 깍히유의  
 하여 보지안이하얏더라  
 정옥조가 밧그로 일어서나아잔후 지금껏 산란혼가슴을 여제하고 잇던경조는  
 니를악물고 참던을음이 홀연 치마자락을 얼골에다이고 늦기는소리 들니인다  
 숭흐다 셔병삼이라 일컫는소리를 들을씨에 경조의귀에는 벽력갓치 울니엿  
 스리로다 셔병삼이라하니 이세상에 동성동명을가진 다른사람이안인가 의심  
 하나 의스라하논말을듯건디 분명흔 전일셔병삼이라 그사람이 오날날 의학박  
 스의지위를 잇어서 의술사회에 일흔이 높을줄 엿지뚫혔스리오 이일은진실  
 로삼에도 생각지못하겠거늘 아-엇지하면 조호리오 지금까지 숨기고숨기여  
 잇던죄상이 불과과시간디에 살아잇는 증거물(證據物)과 한가지로 남편의압  
 해서 탄로가되리로다 이몸은 출성이후로 무슴던별이 그다지만이잇서 사랑하  
 여주시는남편과 명지경각흔 어린아희의압해서 다시전일원슈를 맛나게되니  
 비록십여년동안이나 그사람도 너얼골을 알것이며 이몸도 그사람을 알아보리  
 니 그석에일이면 그중에서 무슴일이 낫하날는지 모로겜도다

데사십회

리경조는 두손을 얼골에다인티로 정신업시 쓰러진다

이몸이 언의석든지 이러흔비참흔일을 당하리라하야 근심하엿더니 과연오날  
 날니르러 셔병삼을 맛나게되니 어린아희의병이 장감만안이면 안이오련만은  
 정남의병이 장감이면 오히려 고치기쉽다 홀썬안이라 의원이두사람이나 모다  
 장감으로 집중을하얏스니 필연장감인것은 분명흔지라 만일그러하면 아모리  
 하여도 이몸이다시 셔병삼을 맛나게될것이오 나의죄상도 그시로탄로될  
 터이니 이몸이 이천구숨으로 너외나할것갓흐면 외인이라고 보이지안이하야  
 도 관계치안이하련만은 전일부터 너외흔일도업거니와 더욱이 령감의성품은  
 예전풍속으로 너즈가 너외만하고 집안에만 드러안져잇는것은 원슈갓치 미워  
 하시논고로 저식의명이 위티흔씨에 유독히 너외흔다함도 남의의심을 니르길  
 터이오 정남이가 병이후로는 더욱이 어미를잠사도 떠나지못하게하니 죄스  
 우량하여도 오날이 비로소 이몸의운슈가 진흔날이라 이몸은그와갓흔 죄악을  
 숨기고형어나 탄로될가하여 거짓말로 이세일을 지너여왔스니 진소위죄상첩  
 죄라 엿지 하늘이나 사룸에게 용서밧기를 바라리오 도로혀 무식흔아녀즈의  
 욕심이오 만일 하늘이나사룸이 이러흔죄에 벌하잔이하면 도로혀 공평흔리  
 치가런디잔에 엽다일거를지라 이몸은 오날날일으려 던벌을입는것이니 누를  
 원망하며한호리오만은 셔셔병삼은 이와갓흔 잔인박형으로도 오날의학박스의  
 충호를듯고 사룸에게 존경을바드니 이세상에 공평흔리치가 엽다할지라 하필



이몸만 오날일으려 하는님의 별을 임계되었스니 하늘을우르러 원망도할것이  
 오 산을구버 부르지지리로다 그러나 이몸의 숨흔스정을 다시풀어줄사람이  
 업도다 이곳으로 내려올썩에 부친의말씀이 몽스가도치못하다하여 심히넘려  
 를하시더니 과연오날 이러흔일을 당하려고 증조가보인것이오  
 별마음으로도 이곳에오기가 진정으로 슬인것을 할일업시 왔더니 그일이모다  
 지금일으려 생각하니 명명하기 한이업다 그러나 부친이 또말씀하시기를 다  
 시맛나보지 못갓다하시더니 혈마그런일은 업갓지만은 만일잘못하여 또 무  
 손사름으로 다향다시 그병이말작되야 실성이라도 할것갓흐면 정남이는 지금  
 명이 조석에왕리하엿스니 다시어미를 성흔얼골로 보지못하고 사별을당하며  
 남편과도 허여지게되면.....

향며 몸소리를친다 다시 경조는 얼골을드러 실낱갓흔숨이부터잇는 정남의얼  
 골을 드러다보니 이썩에정남은 괴로움을 익이지못하는목소리로

『어머니아이이고압과 링슈좀쥬 | 링슈좀쥬.....』  
 경조는 그모양을보고 흐르는눈물을 금치못하며

『오나오나 다향쥬마 | 응』

향며 머리맛해잇는 오미즈물을 스시로써서 입을츠히기여쥬며

『오 | 압푸냐 응 아마대단이압푸지 응 정남아』

우름에설니니는입살에 힘을다하여

『나도 괴롭것지만은 네어미는 지금창자가 썰는듯흔괴로를 당하고있다 너는  
 몇시간만 괴로움을 참고잇스면 고명흔의스가와서 네병을 고쳐줄터이니 너  
 는 그괴로음이 잠간동안이다만은 네병이났는썩에 네어미는 나와서로 성리  
 스별(生離死別)이될는지도 모로갓구나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미운 어미  
 의즈식일지라도 서로피를논은 즈식이라 혈마너서지야 나와갓치 리별하겟  
 나나만은 이후에 어미가업거던 향여너는 어미싱각을향지말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의교훈을 잘들어서 이후장성하거던 도흔사람이되여다고네  
 가그렇게되여쥬면 이어미는 황련에도라가셔라도 우슴으로 날을보너갓다』  
 향며 말을다맛치지못하고 눈물이가리여 어린아히얼골이 보이잔이흐다 경  
 조는 두손으로 얼골을가리우고 길게하숨지으며

『아이 너가이근심을 이즈려면 찰하리 한마음을결단하는것이 나으런만은 그  
 러하면 우리부친이 불상하여 오날날서지라도 부친을위하는마음으로 부친  
 싱존중은 무슴일이 잇드라하여도 그런마음을 먹지안이하고 부친을위로코  
 저하여 전일의 지은죄도 아모도록 탄로치안기를 원하엿더니 오날와서 발  
 서 이지경에 일으르스니 다시엇지할슈도업고 늑으신부친씨서는 호을로탄  
 식할실일이 뼈가절이고 살이압흐게 슬어못견디겟스니 아이가 무슴사름



으로 뇌물을바리든 이곳에다시와서 그사름을맞나게되니 이것도 명명하신  
 하느님이 죄인에게 벌을 나리시노라고심이라 이제일으려서는 슬허하여  
 도 쓸디업고 원통하여도 쓸디업고 다만마음이나 가다듬어 결단하려니와  
 단지 이어린조식을두고 엇지발길이도라셔 아! 정남아 너는웨 이런병이들  
 엇드란말이나』

데스십일회

슈척흔 어린아히일골에 더운눈물두셔너방울이 썩々떨러진다

이제비로소의스가드러오는지 문밖그로부터 사름의발조최나며 남편과한가지  
 로 슈작하는소리가들니々 이는의심업는 서병삼의목소리라 경조는홀연일골이  
 파랏도록질니며 가슴이나려안조 몸을엇지할줄 모로다가 다시싱각하되 내몸  
 이임의 이디경에 일으렷스니 찰하리 운슈의하느니로 맛기여두리라 결심하고  
 정신을가다듬어 런연흔괴식을 보이다라 홀연방문이 열니며 처음부터 병을치  
 료하던 의스와 정옥조가 압호로셔々 드러오며 그뒤에는 의학박사서병삼이  
 드러오느니 십년전의일골은 그뒤로잇스나 입에는 슈염이훗날니여 잠스잔보  
 미 년치가 사십갓가왔다하여도 가할너라

그일골을 한번보미 경조는정신업시 고통하는 정남의손을쥐인치로 고기를슈  
 이고 락업시안젧스니 전일제상일을 조셔히아지도못하던 처녀시절에 조기를

장중에희롱하는 싯을만드렷다가 다시너쳐바리여 조금도々라보지 안이하고  
 무정각박하여 찬어름갓흔그눈과 조기의눈이셔로 마조치였다 그러나 경조는  
 지금일으러 임의십년이전에 철모로든 녀학성이아니오 이제는세상에 모든풍  
 파와고락을 맛보아 단련흔몸이라 마음을다시 단단히먹고 조금도겁하는 괴식  
 이업다 처음부터단이던의원은 서박스와 한가지로 자리에안즈며 경조를향하  
 야서병삼을 소키한다

『이랑반이 서박스를시다 그런디 앓가제가 가지고갓던 피를시험하야보은죽  
 과연장감인줄을 분명히아랏습는고로 이어룬을 되시고왔습니다 이어룬이인  
 제 오섯스닛가 조제병환은 격정하실것업시 꽤츄덜터이니 너무념려마십시  
 오』

경조는 링담흔리도로

『이렇게멀니와주시니 너무감스호오이다』

하며 잔싯히 인스를맞치미 서병삼도 쏘흔인스를 맞치였다라 그러나 서병삼  
 은발셔 리경조인줄을 마음으로짐작하고 니렴으로 싱각하되

져사름이 녀학성시디와 다르고 점조는 스부가의부인이되얏스니 엇지 천만의  
 외가 안이리오 그러나 지금잠잔보건디 경조는 눈에두려하는괴식이 낫하났스  
 며 정옥조가 나의일흔을드조고 나의일골을보아도 조곰도다른괴식이 안이보이



니 이는 필연코 경조가 전일에 나와한가지로 관계할일을숨기고 이곳으로 출  
 가함이 분명할지라 이는 진실로 불과 지회오 괴이한일이니 한번다시 경조를  
 니수중에 십년이전부터 나의안히로 잇든사람을 남의게맡기여두는것은 대단  
 불가할뿐만이 아니라 이 넓은런디에서 어디가업서 이대홍손성에서 다시맛나게되니  
 이는진실로 괴이한인연이로다하며 서병삼은 혼조말한다  
 그러나 서병삼은 조괴의죽무로하야 이곳에왔는지라 다시마음을도로켜병으로  
 누어잇는 어린아히에게 주의한다 본디에서병삼이라 하는사람은 사람의 뜻  
 혼정이라하는것은업고 링혹침인(冷酷慘忍)한마음을 가져잇스나 한갓조괴의  
 죽무에디하야는 엇더할것이라하여도 회심에공하는 성질이잇는지라 그럼으로  
 서병삼이 지금이르러 의술사회에서 일함이 낮하남은 조괴의 고유한죄조와 그  
 특별할성질이 잇는연고라 지금 정남의병세에디하야 조세말을드르며 조서  
 히진찰할뉘에는 가장침착한티도로 비록엄해사람이잇스나 병조와 조괴의두몸  
 만잇는것갓치 주의하여 진찰하니 이것이진짚이서병삼의 성질중 아름다운것  
 이리라

제스십이회

서병삼은 아히의병을 진찰하기를맞치고

『참 대단이위중하외다그려』

정옥조는 그말을듯고 녀려되야

『병이니무 한도에넘어서 약을쓸도리가 업지안이한가오』

서병삼은 슈음을 좌우로쓰다듬으며

『병으로말하면 아조극도에 달하였습니다만은 주스(注射) 한번만하면 녀려업

시 래추합니다』

『네! 그것습닛가 너무갑스하오이다』

서병삼은 가방으로조초 조괴의연구한바 혈청주스(血清注射)라하는 괴계를  
 니여 병조의상각부(上脚部)를 정하게써스후 한기의 주스를하엿더라

서병삼은 다른의스를 도라보며

『인제주스를하엿스닛가 병근은 업서질터이나 그후에쓰는약은 로형이싱각하

여서 보혈지데로 쓰시오』

『네! 그것게하겠습니다』

서병삼은 다시정옥조를 향하여

『얼고는 오날밤으로 업서질터이오 니일부터는 두홍과빅티와셜스도 것철것

이오나 이후에는 소복식이닛기 대단주의를하세야 할터이닛가 그주의할실

조건은 령감씩말씀하는이보다 부인되시는 어룬씩말씀을 조서이하여두어야

하겠습니다』





정욱조는 희식이 만연하야  
『선성님의 덕택으로 이 지식의 목숨을 건졌스니 이런 고마운 은혜는 도모지업게  
습니다』

정욱조는 다시 그 안희를 도라보며

『이 어룬씩 말씀들 저서히 드러두시오』

경조는 서병삼을 향하야 공손히

『지식의 병을 이렇케 구히셔 주시니 너모 감사하오이다 이후에 조섭식이든 일  
도 저세가라쳐 주시면 좋라시는 디로 행하겠습시다』

조곰도 스식이 업서 모로는 사름에게 향하야 말하드서 말하느 경조의 얼굴을 서  
병삼은 희긋바라보며

『네— 그 말씀도 인제 하겠습시다 만은 지금 잠깐 뵈오니 부인 씨셔도 신식이 대  
단 도치 못하신 모양이니 저제 병으로 넘어 심려를 하셔々 그러하신 지는 몰나도  
내가 뵈옵기에는 다른 신앙이 계신 것 같소이다』

경조는 고기를 숙이고

『어린놈의 병으로 하셔 저연 심려하엿더니 그러하것이지 오 별로 다른 병은 업습  
니다』

저간 그 두사름 사이에 은복하여 잇는 저제 할스 실을 아지 못하느 정욱조는 얼는

뒤 답을 한다

『그 말씀이 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치니 내 저라하느 것은 본리부터 몸이 충실  
치 못하셔 일상 조병이 몸에서 썩날스이가 업는디 이곳으로 오기는 너저의 병  
으로 하여셔 산쥬 쇼흔데서 쇼흔물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면 좀 초도 잇습  
가하고 이리로 나려와드니 조곰도 초도는 보지 못하교 의외 어린놈이 이렇케  
중병이 드렸습니다 그러 로형 씨셔는 부인 과(婦人科)는 진찰하시저 안이 하실  
러이닛가 좀 보아 주십시오고 원할 슈도 업고……』

『아— 그러하심니다 그러 암만 하도 얼굴을 뵈오닛가 병식이 잇는 것 같히셔 앓  
가도 혼말씀이 올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의서는 전염병(傳染病)을 전문으로  
연구합니다 만은 전일에는 부인들의 병도 보아 준일이 잇스닛가 만일의 향이  
계실 것 같으면 잠잠진찰하여 드려도 관계 업습 듯하외다』

경조는 고기를 숙이고 공손한 말소리로

『말씀은 넘오고 말씀니다 만은 리일이면 서울우리 집 단골의원이 올러이오닛가  
그의 스하교 한번의 료하야 보고서 말씀을 엿줍겠습니다』

정욱조는 눈쌀을 찌푸리며  
『웨또 그러케 고집을 세우고 잇소 다 형이셔 박사 씨셔 여기와 계시니 이런 조흔





기회를 못치고 엇더케 하려고 그리하시오』

『안이오 결단코 억지로 권하는 것은 안이올시다 서울서 유명하신의원이나려 오신다닛가 나 갓흔사람이 엇지진찰하게 할슈잇습닛가 그것은 부인씨셔의 향뒤로하시고 저제병에티하여서는 특별히 명심하실일이 여러가지잇스닛가 종용할방이잇스면 그리로가셔서 저저히 드러주시면 조켓습니다』

『네 그러면 저편에 종용할방이잇스니 그리로가셔서 말씀을하여 주십시오』  
『고려 경주는 먼저일어셔서 서병삼을인도하여 다른방으로 건너간다 그러나 이두사람의 담화가 다만정남의병 만위하여함인지 경주의운명이 오늘날으러 판단이될는지 가슴은전를하나 억지로 마음을가다듬어 단々히먹고 서병삼을 한방안으로인도하여 두사람이 드러간후는 문을닫치고 스면이고요하다』

데사십삼회

리경주는 서병삼을인도하여 고요할방안에 좌평후후 경주는다시 공손훈언스로 『어린것의병을이렇게고쳐주시니 감사함은말씀은 이로무엇이라 엇줄말씀이 업습니다 이후소복식이는데 티하여서 일니줄말씀이 잇다하시니 무슨말씀 인지 저제히일너주시면 그티로 시행하겠습니다』

서병삼은 가버이점두하여 한번례하며  
『부인씨저 그다지과히치스를하시닛가 이 서병삼의 마음에는 도로혀황송하오 옥등갓흔 아드님을두시고 장중보육갓치 총의를하시닛것을 생각하오니 너 마음에 정말부럽소이다 세상에사람치고 저식사랑안이하는사람은 업스닛가』  
경주는 레스로이티답한다

『네 그말씀이야 다일을말씀이오닛가 그런말씀은 그만두시고 아히병에티흔 말씀이나 하여주시면 도켓습니다』

서병삼은 비웃는모양으로 우스며  
『응여보부인내가 지금당신을 이리로청하여 가지고온것은 어린아히병을위 하여서 청할것이안이라 짜로이 너 일이잇셔서 그리할것이오 아히병은 다른 의스에게 너가 단々히 말하여들터이닛가 부인에게서지 말씀안이하여도쫓소』  
하여말을맞치고 한참동안이나 경주의얼굴을 바라보더니 급히어두를번하여

『여보시오 정협관이라 하는사람은 당신의 두번지엇은 남편이지오』  
경주는다시놀니이는 괴석도업고 겁하는모양도업시 링담하되도로

『그말씀은 엇지하여 하시닛말씀인지는 모르겟습니다만은 아마당신이 잘못 생각을하시고 말씀인듯하오이다 너가지금 남의정당흔 안히가되어서 잇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오 또 마지막이오 가량이 번남편이 두번지었은 남편이라  
항기로 당신씩야 무슴관계가있셔서 이말씀이오」  
서병삼은 경조가 전스는모로는체하고 타인에게더항여 말하듯이 항는모양에  
얼마쯤분기가 겨동되얏던지 무름을 압흐로녀여밀어안즈며

『여보 정부인마님이서병삼이라 항는사람의정신은 결단코 당신가지는 안이  
항오 그것이아마 밭서심여년전 일인가보오만은 그씨에엇더호 아름다운숙  
녀(淑女)에게 이정을다항여 안히로알고있던 당시 의학성서병삼을 아미이져  
바렸나보오그러 그러나 그씨에서병삼이라고 일꺼르른 죽이사름은 그씨에  
안히로 덩항얏던 그녀조의얼골이 지금도눈에발피고 마음에게득흔디 후시  
니눈의동조가 틀녓스면 모로겟스되 만일그러치안이하면 지금나는 그씨녀  
학성으로있던 리경조라항는녀조와 슈작하고있느줄 아난디……』  
서병삼이 가장비우스며 휘욕항는모양으로 조기를바라보난디 경조도조연심  
시격항항여

『네- 너일홈이 리경조는 리경조를사다만은 나는당신에게 속아서 목숨씩지  
바리고조항는계집이오 그런디지금당신은 나를안히로알고 잇섯다항사니 그  
런말숨을 엇지입으로항심닛가 그씨에당신말숨이 처음부터 니가그타를안히  
로 숨고조항이안이라고항시던 생각은못항심닛가 나는진정으로 당신을 빅

년을갓치 지닐남편으로만알고 교당에서 결혼호것도 진정호혼식으로만알  
앗더니 그일이모다 물우에겍품으로 허스가되고 단지당신의 독호슈단에 속  
을뿐만이니 당신도아마 이즈섯슬리는 업지오만은 이몸은 글로항여 이세상  
에서 스라잇슬씩씩지는 괴로움을받을티이오져 처신잘못호런별도 밧을줄압  
니다 당신도 적이나 마음에 인정이라항는물건이 잇슬것갓호면 이불행호신  
세를 가엽고 불상이역여 주시는것이 오히려도리에 을홀싹호지오」  
항여서병삼의행동을 면박호의 서병삼은 더욱안광에 분기를씩우며 무슴말을  
하러호지음에 경조는다시 숨호괴적이낫하나며 오열항는 음성으로

『그러나 대체당신이 무슴일로 나를이리로청호섯소 인제는 나와당신과는 터  
럭썩만차라도 관계가엮는 남남이올시다 그씨로말호드리도 니가당신을 낚  
은것도안이오 당신이여지로 나를낚어바린일이닛가 지금이야 길에지나가는  
타인과 마찬가지로 다만나는 제가행실을 잘못가진것을 뉘웃치고 조곰이  
라도 지금은당신을 원망치안이함니다 이몸은 전일잘못호죄로 일평성을고  
등으로만지닌 이 불상호계집이올시다 당신이나를 이리불너가지고 오신것  
은 이우에더욱 곤란을쥬려고 항시는뜻인가 보이다그려』

데사십사회

『여보 정협관부인 지금당신말숨은 신세가불행호다항사나 니눈으로보기에



대단이 팔조도케 지니는 것 같으니 그러나 나 갖은 사람을 남편으로 엿드면  
일성을 파듯쳐서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을 명예 잇고 지위 잇고 재산만은 정협관  
의 집에 와서 걱정 근심 업시 세월을 보지 못하야 아마 당신 마음이 만족할 줄도 아  
오 그러나 당신은 말이 불행한 몸이라 하니 그리허를 이서 병삼이란 놈은 알슈  
업소

고며 경조의 얼굴을 뜻이 잇는 것 같치 드러다 본다 서병삼은 입의 경조가 지나간  
전일스 정을 숨기고 정옥조에 출가한 줄을 짐작하고 경조가 가장 곱하는 곳을  
들치여 보고자 한다 경조는 고기를 속이고 묵々히 안젓는디 서병삼은 다시 소리를  
높히 고여

『여보부인 사람이 라는 것은 외양으로만 보아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지 못  
하는 것인 고로 그디가 근심으로 세월을 보닌다 하는 말이 진정호 말일 것 같호면  
나도 대강 쳐다를 일이 잇소 그러면 여보 그디가 전일에 지닌 바일은 정협관에  
게 숨기고 잇는 것이 분명호 구려』

경조는 그 말에 깜짝 놀나 이디 서병삼은 경조의 놀리는 얼굴을 보고 사실을 심분  
이나 짐작호 었더라 서병삼은 입을 다사 열어

『그디가 만일 전사를 정협관에게 바른 디로 고히고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  
々로 스는 러 일지경이면 조곰이라도 근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닐 리가 업는

디 그 만호면 나도 알겠소 그러닛가 지금 그디의 스정이 잠깐 비유호여 말호면  
날카로운 작도우에 버는 발로 올라서서 출주는 무당과 한겨이요 구려』

경조는 디 답 업서 다만 길게 한숨만 짓고 잇다  
서병삼은 다시 목소리를 나작이 호며

『그러나 여보시오부인 당신의 스정을 감안이싱각을 하니 참가업소 당신의 근  
심되는 사독도 니가 다 짐작호오 당신을 그와 같치 근심되도록 만드러 노은 사람  
은 모다 이서 병삼의 잘못이오 지금 니가 그 스정을 안 이상에는 니가 어디서  
지든지 힘을 다호여 단정코 그디의 근심하는 몸을 구원호여 주오리다 여보그  
구원하는 방법을 지금 니가 말호오릿가』

경조는 현실업는 얼굴을 잔신이 들고  
『구원을 해주신다 하니 엇더케 호겟다 시는 말씀이오닛가』

『그 말은 다른 것이 안이라 막 잘 나서 말호면 정협관호고는 리 혼을 호고 다시서  
병삼의 안히가 되게 호라는 말이오』

경조는 홀연 변색을 호며  
『당신은 참말 홀슈업는 량반이오 그러도 부족호야서 이우에 또 나를 조롱호고  
욕을 보이려고 그리 호심닛가』

『안-이오 결단코 니가 당신을 욕보이고 호호여서 하는 말이 안이라 어디서지





든지 당신의 몸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오 이셔병삼이도 이젠 갖치 지각업는 사람이 안인고로 니가오날까지 그티에게티하여 무정히 흥든 죄를 감기위하여서 이번에는 남편된직척을 다하여서 그티를 더욱 사랑할터이오

『당신은 정말々々 담티호말슴도 하심니다 나도인제는 전과갓치 세상을모르는 녀자가안이오 옛々호남편을 되시고 잇는몸인디 그런더러운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만일그런무례호소리를 할실터이면 나는저방으로 가겟습니다』

셔병삼은 더욱 흑독호복조를 두루며

『저방으로갈터이거던 어서가시오 그러면 나는죽점으로 정형판과 담판을하고 그티를다려갈터이니 그런줄알고 어서저방으로가오』

경조는 일어서려하다가 일어서지 못하고 산란호심스가 그즈리에서 소리쳐한 엄시동곡을 하고심으나 사람의체면을보노라고 억지로분함을참고

『그것이무슴 억지의말슴이오닛가 당신은 요쵸숙녀갓흔권씨를 안히로두시고 웨이리 사름을 괴로이구심닛가』

『응 잇기는잇섯지요 그러나 작년에 그만죽엇다오』

『네- 그이가죽엇셔요 에구머니나』  
데사심오희

셔병삼은 경조의늘리는얼굴을 바라보며

『그사름은 벌써 작년가을에죽엇셔요 아마 당신마음에는 시원하겠지요 그사름은 허산호제마다 항상위경으로 지니더니 세번제 허산을하고는 인하여죽엇는디 다행으로도 었지호슈가업셔々 그만죽엇소만은 그사름은 죽은게제 팔즈에는 오히려편호는지도 모로지오 본리성품이 었더케 투기가만은저조곰만하여도 시음을하닛가 나도었더케 제어를호슈업시 진정못겐티겐더니저도이세상에 자미라하는것은 알지못하고 죽엇스니 지금디하에가서는 오히려마음이 편안하게 길게잠드러 잇슬듯호오』

셔병삼의 그말을드르미 비록당장에서로닷도든 스일지라도 다정호리경조의마음은 죽은사름을위하여 비참호마음을 금치못호며

『아- 그이가 도라갓단말슴이오닛가 아이고 가업셔라』  
호며 아릅다운 동정심을 표호며

『그러닛가 당신은 그이에게서지 못호노릇을 하섯습니다그러』  
『천만에니가웨 못호노릇을 할리가잇소 제가명박하여서 죽은것이 지-지

금닉스정이그러하여서 이셔병삼은 지금호아비로잇스닛가 아모리성각호여도 다시속현을하여 호겐는디 그티가잇는바에야 서로다른곳에 구호필요가업스나 그티는또 정신차릴일잇소 다른일이안이라 그티는 남편이라하는



물건을 두고 다시 자짐을 잔 모양이니 만일 다투가 탄하여 말을 한면 그대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하려 하오

『네- 다투가 남편을 바리고 다른 다투로 시집을 가요 그게 었더케 하시는 말씀임닛가 다투가 당신의 안히도 아모것도 안이오 당초 아지도 못하는 타인과 다름이 업는디 그말씀이 엇젠 말씀이오 나는 그 때에 찰하리 죽어 모로려 하여 이세상을 떠나라 결심 하였는고로 최후당신이 보니신 리 혼하여 시던편지를 모다 업시 하였지만은 당신의 필적으로 리 혼하는 글씨를 보니 사지 안이 하였소 그분도 안이라 교당에서 결혼한 것은 모다 거짓 것 이라고 정녕히 말씀하시고 이제이게 무슨 말씀임닛가』

서병삼은 씩이 어딘 말로

『응- 그러하지 리 혼장도 써서 주엇고 결혼도 거짓으로 혼일이라고 말은 하였소 그러나 암만 리 혼장을 하여 주엇드리도 지금와서 다투가 그런일이 업다 하면 그만이오 또 거짓 결혼이라 하였스나 그것은 그 때 임시변통하여서 하는 말이지 지금이라도 그 교당일과 척에 나와 당신 두 사람의 성명이 부부가 되엿다고 써 여잇스면 엇지 할터이오 나는 그것을 증거로 숨아가지고 송사를 이르기 일수도 잇소』

한며 입에서 나오느니로 연약 혼녀의 가슴을 험박하니 경주는 겁을 품고 몸을 떨며

『그것은 전혀 거짓말씀이올시다 오날와서 이런말씀까지 하실 줄은 몰랐지오 엇지 하면 그런스 같갓혼 독한말씀을 하심닛가 전일에는 교당에도 처부도 올니지 안이 하고 아모 증거가 업다고 하시더니 엇저면 일언박 결혼말씀을 하심닛가』

『그 때에 그렇게 말한 것은 좀 시간 고식 지게로 말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면 당신이 오히려 송사를 하드리도 의의지 못하시리다 그 때는 귀머리를 마조품 부모가 결혼하여 주신 안히를 두고도 남의 집 처녀를 속이여 몸을 바리여 노앗스니 죄로 말하면 당신이 더 중하겠지요』

서병삼은 그 말은 대답지 안이 하고 다른 말을 집어 버어

『니가 지금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안이라 지금이라도 그 교당에 잇는 괴록에 만일 다투 일혼과 그대의 일혼이 켜여서 모년 모월 모일에 결혼식을 거행 하였다는 필적이 잇는 것을 지금 정협관이 한번 보게 되면 무엇이 라고 하겠소 엇더튼지 그대는 지금 몸이 위티 혼곳에 잇는고로 그 위티 혼 것을 구원하여 주교져 다투가 자연 과도 한 말도 나오느 것이지 그대만 하드리도 잠간 생각을 하여 보시오 지금 그대는 비밀한 스정을 숨기고 정협관에게 사랑을 받고 잇스나 그대에게 더





홍야는 극히원슈라도 홀만하고 도척이라도 홀만호셔 명삼이가 이제상에서  
 떠나가기전에 잠서라도 그근심을 이즐날이업슬터이니 다만그티가안심입  
 명(安身立命)홀곳을 엿으려호는디 한방법잇스니 그것은 다른것이안이라  
 전일남편에게로 다시도라오호는것이 제일상책이라호오 이일은 그티만마음을  
 그것케결단호면 정육조와 인연은게는 아조 지이홀일이오

경조는 셤나노목소리로

『당신에게 다사가려면 이런근심은 안이호고지니게오 길이란이면 가지말나  
 고말이안이닛가 단처도 안이호겟습니 다만은 그런더러운소리는 다시호시지  
 마시오』

『홍 대단이 슈작이강경호군 정그릿게말호면 나는 내마음대로 홀밧게업소  
 나는다른사름 열을보니보다 정협판을 한 산보앗스면 일이얼핏 결말이날  
 터이지』

호며 눈썹리로 경조를홀기여보나 경조는몸을조곰도 움직이지안이호고 고기  
 만속이고 티답이업다

서명삼은 다시무삼성각을 호았노지

『올치내가한가지 이존일이잇소 그중 긴흔말을 안이무러보앗구려 다른말이  
 안이라 내조식은 그간엇지호았소 드르닛가 룡산강변 엿터호사름의집에서

나엇다고호더니 그후에 엿지되앗소 조셔히가라쳐주시오』

경조는 홀연모골이 송연호며

『알슈업셔요』

데스십륙회

경조는 목어은고귀를 간신이들어

『그러나 룡산셔 내가히산홀일은 엿지아셔요』

서명삼은 경조의못는말을 도로혀 이상스려히녀이며

『그것을 내가모를리잇소 그티아버지쳐셔 우리사골까지 나려오셔々 우리부  
 친과 담판을호시교 그아히양육비(養育費)로 돈이천원을 드렸노디 그새는  
 내가맛참 신히려힘으로 외방에가셔 잇슬때인고로 나는보지못호엿거니와  
 그티가모를리가 잇겟소』

이일은 경조가 이제비로소 처음듯는말이라 앓짜늘녀어

『아 그말슴이 정말슴이오닛가』

서명삼은 경조가일을전혀 아지못호는 모양을보고

『응 그일은 그티의부친쳐셔 권도로속이교 말슴안이호섯는지도 모로겟지만  
 은 그아히양육비로 돈이천원 드린것은 적실호오』

경조는 조귀의부친이 속이고말안이홀일을 서로히원망호며 지금한방안에서



서명삼은 경조가일을전혀 아지못호는 모양을보고

『응 그일은 그티의부친쳐셔 권도로속이교 말슴안이호섯는지도 모로겟지만  
 은 그아히양육비로 돈이천원 드린것은 적실호오』

경조는 조귀의부친이 속이고말안이홀일을 서로히원망호며 지금한방안에서



서로 티와 하여 잇는 사람의 혈속을 나앗든 그 당시를 멀리 생각함의 가삼이 막히  
여 말을 일우지 못하고 초연이 안젓스미 서병삼은 다시 말을 거듭하여

『사름이 그것케 되었는고로 룡산강변에서 사나히 아히를 나은 줄을 니가 알앗고  
그분이 안이라 그 후에 그티가 어린 아히를 죽이려고 하던 일까지 다 알앗소』

경지는 놀니이느 지음에 홀연

『에그머니』

하는 말이 저절로 입밖게 나옴을 세닫지 못한다 서병삼은 링연이 안져서

『그말은 그티부친씩 드르말슴이 안이라 그 후에 오정당에게 드르말이오』

서병삼의 말하는 것이 일이 경지로 하야곰 놀니게 만한다

『아— 오션님씩 드르서요』

『그것도 오정당이 즉점으로 안것이 안이라 그 후 잇히 썸이나 지닐 후에 오정당  
이 어덕서 우연이 그티가 사적골서 집을 명하고 잇슬썸에 상직잡자던 로파  
를 맛나서 그말을 드렸노라고 말을 함디다』

경지는 다시 한숨 짓고 고기를 속으린다 비웃는 모양으로 경지를 바라보며 서삼  
삼은

『응 그것은 니가 미우닛가 저식까지 미운 마음이나서 죽이려 하기도 고이치안  
은일이오』

『안이야오 그런일이 안이라 그썸은 병으로 하셔 정신이 업서 지고 거의 밋쳤던 썸  
닛가 그리서 그런일을 하얏던 것이지 아모리 밋다 하기로 저식을 죽이는 부모  
가 어티 잇겟습닛가 그썸은 진정으로 당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심하여서 인히  
서 서병삼은 다시 말을 친절이 하며

『그처럼 뇌성각을 하여 주시던 부인이니 그 아히를 위하야서 다시 그모친을 엇  
고져하는 이서 병삼의 원을 맛초아 주시면 도치안이 하겟소 조곰이라도 그티  
가 모르지정이 잇슬 것갓흐면 니가 정협판에게 담판을 하여서 당신을 다리고  
갈터이니 그말이 엇더하오』

경지는 터지는 듯한 가슴을 참다 못하여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오고 눈물을 흘리며  
『그게 무슴말슴이 오닛가 당신은 조곰도 인정이 라는 것은 업는 량반이올시다  
그려 썸에라도 저비저심이 잇는 량반이 거던 지금까지 당신으로 하여 하로도  
즐거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턴별을 입고 잇는디 이우에 더한 설음을 주려 하시  
니 조곰이라도 이몸의 스정을 가련히 하여 주시오 지금 피시고 잇는 이 남편도  
언제까지던지 나의 전일 죄과를 숨기고 의안인 영화를 탐하러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은 조곰도 업습니다 다만 하으신 부친을 위하는 마음과 어린 저식 정남을  
싱각하여서 귀치안이 흔 세월을 보냅니다 이 스정을 좀 싱각하여 주십시오 단



지금로 하여 그리하는 말씀이오 조곰도 제 몸에 유익고 자하여 하는 것은 안이  
을사다 나는 몸은 이렇게 살아있셔도 마음은 말서 썩어지가 되었습니다」  
서병삼은 감안이 안져서 듯기를 다 하더니 홀연 눈을 뜨며

『흥! 그러하겠지 어린것을 보아서 용서하라 하는 말인가 보오만은 부모치고 자  
식 생각 안이 하는 사람이야 어디 있겠소 당연히 그러할일이 지 그러하지만은  
엇던 전생을 못 잊겠단 말이오 지금 병상에 누어서 알는 아히만 그대의 아달이지  
십여년전에 용산강변에서 나온 자식은 그대의 아달이 안이오 서병삼의 자식은  
아모릿게 되던지 정육조의 제제만 부귀장슈하였스면 좃겠단 하는 말이오 그러  
그런 편벽된 마음을 가지고 동정을 표하여 달나하니 엇더케 너가 동정을 표할마  
음이 나 오겠소 이것은 너 말이 여지인가 당신의 말이 여지인가 감안이 좀 성  
각을 하여 보시오』

가슴을 쓸는듯한 서병삼의 말한마디에 경조는 대답할바를 전혀 일코 바람부는  
곳에 나 무입과 리갓치 쉼고 잇슬뿐이러라  
데스십철회

서병삼은 거듭 못는다

『너가 중언부언 못하는 말갓소만은 당신이 나온 자식을 그 후에 엇지 하였소 잘 자  
라겠지오 금년에 나히발서 열한살이나 되었는디 지금 어디가 서잇소』

리경조는 쉼나는 목소리로

『알슈업셔요』

서병삼은 다시 노후록소리로

『알슈업셔요』

『너 자식의 간 곳을 몰나요 그게 말이 되오 을소그말 너가 알아듯겟소 갓나앗슬  
씩에도 죽이려고 서지 하던 자식이 너가 아모에게나 귀구녀까지로 준게구려  
만일그렇게 하였스면 누집에다가 죽었는지 불가불 명백히 알아야 하겟스니  
디답하시오 너 자식을 너가 찾는것은 아비된 사람의 권리원다』

경조의 말을 들으러다 보며

『나는 하늘이 두쪽에나 드리도 그 자식은 초저야 하겟소 나는 지금 자식이라고  
하나도 업고 죽은마누라라 하는 위인은 세번이나 허산을 하였지만은 세번을  
다스리를 하였다가 나종의 허산에는 더서져 죽은 자식을 싸라갓스니 그사람  
이나잇스면 이후라도 자식을 나를여망이나 잊겠지만은 그러치는 못하고 나  
히는점점 만아가갓가 별안간에 그 자식 생각이 불갓치 일어나는구려 그리고  
로히셔 요스이는 아모도록 그대를 한번 만나 보면 그 자식의 소식을 알고자하  
엿더니 오날다행이여과셔 당신을 맞앗스니 엇지하여 그 자서호말을 듯지안  
이 하겟소』



경조는 터지는듯한 감음을 여지로 전정하며

『그러나 전정나는 그어린것의 잔곳을 아지 못합니다 나도 제 지식의 일이고로 히서 하로라도 생각안이나는 날 업습니다 그 지식의 스승 존물을 나는 도모지 알 슈업셔々 후시 우리 부친씨라도 엿쥬어 보면 죽었다고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은 조곰도 안이하시니 닐들 엿지 암닛가』

서병삼은 기쁘기 기쁘히 경조의 언사와 괴식을 숨히 건디 파연 그 아현의 거처를 아지 못하는 모양을 봄이 가장락심하는 모양으로

『그러면 그대는 도모지 모로 겐다하시니 인제는 다시 기회를 타가지고 그티부친 씨 질문을 할 슈밭게 업소』  
함며 한숨짓는다

『그러나 부인 나는 지금 너 지식의 잔 곳도 아지 못하얏지만은 나는 그티의 아달 을 오날날 살너 쥬사름이 닛가 그티와 정육주에게 디히셔는 너가 은인이 안이 호』

『그러닛가 그런공을 갑는 보슈(報酬)라 하는 것이 잇셔야 할터이니 만일 그티가 보슈 주기가 실으면 나는 정협판에게 밧을터이오』

함며 의미잇는 것갓흔 어조를 경조는 모로는 데함며  
『네! 그은공은 엿더 케던지히셔 갑겟습니다』

『야모렴 그러하실터이지 저데의 목숨을 전허너 힘으로 건졌스닛가 내가 제저 조를 자랑하는 것이 안이라 저데의 병은 아조극도에 올났는고로 이기성근쳐 의원의 힘으로는 도더히고치지 못올터이오 가량셔울셔 명의가 나려온다 함 드리도 임의 짐이 기우러져 노으면 심중 팔구는 못고치는디 인연이 닳노라고 우연이 너가 이곳별장으로 나려와셔 잇던 사름으로 사름의 목숨 하나를 구하얏스닛가 거괴상 당흔 보슈를 정협판도 생각이 잇스면 썬소리 흘리는 업지오 안그릿소 부인의 사향에는 엿더함오』

『네! 지금 말씀하바와갓치 돈은 몇만금이 들터리도 그공을 갑겟습니다』  
서병삼은 위협하는 큰소리로

『그게 무슨 소리오 나는 결단코 돈으로 그공을 갑허달나는 것이 안이라 사름 하나를 살너 쥬엇스니 그티신에 사름 하나를 엿어가 지고 가겟다하는 말인디 죽 말하면 부인을 그레물로 엿어 갈 생각이 닛가 정협판도 못흔다 할리는 만무하 지오』

경조는 지금까지 셤고잇든몸에 홀연 노괴를 띄우며 심중으로 무슴결심을 하얏 는지 얼골을 들고

『그와갓치 나는 소리를 타셔 말씀을 하야도 점々 무레흔 말만하시니 그러면 인제는 당신 마음터로 하시오 당신이 우리 령감에게 무슨 소리를 하시든지 나는 인



데스십팔회

제는 조곰도 무서워할일이업스니 당신마음되로 하시오

경조는 다시말한다

『당신이 스이에 들어서 우리령감에게 조초지종을 다 말씀하여 주시오 그러케 하는것이 오히려 너게는 더욱 좋습니 다 나도 이리로 식집은 후에 칠팔년이되 도록 남편에게 전사를 조복코 조호일이 몇번인지 모로지오만은 항상귀회를 타지 못하고 약흔계집의 마음이라 결단못하는일도 잇서 지금것 조복을 하지 못하고 오날々까지 근심으로 속을 터우고 세월을 보되 었더니 천만다행으로 당신이 너덕신으로 말씀을 하여 주신다 하시니 그런조홀다가 어딴잇습닛가 나는이후는 근심을 업시 할터이니 아모도록 우리령감께 조셔이 말씀하여 주시오 평성을 남편에게 숨기고 살슈는 업슬터이오 언제던지 이디경을 한번은 격글 줄을 나 도아는 터이닛가 하로라도 속흔편이 좃치 안겠습닛가』

서병삼은 슈염을 좌우로 쓰다듬으며

『그러면 부인의 몸은 너게의탁을 할겠다 하는말이오』

『그것은 또 무슴말씀이 오닛가 너가 지금 우리 남편에게 리혼을 당하면 당홀썬 이지 너 몸이 비록 죽어 흠이 되드리도 당신세는 다시안이 갈터이니 그런더러운 소리만 하고 계실터이면 나는 다시 듣지 안이 할터이니 어셔 밧그로 나가시

경조의 언골과 괴석이 추상갓흐며 도리에 덕당흔 말을 드르미 서병삼은 터 답할바를 모로다가 다시 혀々우스며

『청산류슈갓흔 슈작은 전일십년전 리경조와는 썬판이 오구려』

항며 어투를 다시 변하여

『그러면 부인 말씀과 갓치 정협판에게 말하겠소 그다가 내안히가 못되겠다 하시면 엇지 흠슈잇소만은 내가 나를 밧되흔 갑흔을 썬 할터이닛가 그리 아오』

항며 오히려 무한흔 위협을 하나 그러나 경조는 조곰도 겁하는 빛이 업고

『네 엇더케 하시던지 마음되로 하시오 나도 말셔 먹은 마음은 잇스닛가 인제는 다른일은 업슬터이니 나는 저방으로 갑니다』

경조가 옷을 썰치고 일어서는 터 서병삼은 마음을 돌너리라고 생각이 잇섯는 지 다시 말소리를 나 죽이 항여

『여보시오 부인 잠간만 기다리시오』

『나는 기다려도 쓸터 업스니 인제는 당신 마음되로 하시오 나는 당초에 당신갓 혼이 항고 말하 기도 실여요』



항며 설치고 가려함이 서병삼은 허々우스며

『그저 잠간만 안드셔요 인제는 다시 위협하는 말은 안이홀터이니 잠간만 안드  
시요 이렇케셔셔야 리약이를 할슈가잇소 인제는 내가 다시 스죄를 항겟소 당  
신이 그럭케 도흔마음을 가지고 배신줄을 몰났더니 이렇케 그동안에 암전하  
고 엄전하신 귀부인이 되신줄을 모르고 부인을 괴로이군것은 나의 본의가 안  
인고로 나도 마음을 꾀쳐먹고잇스니 이세지흔말슴은 한귀로듯고 한귀로홀  
녀쥬시오 나는 단지 너아달을 츄지려하는 마음으로 말마디나하다가 과격호  
말슴을 항엿스나 다름안이라 이것저것 할것업시 모다 이르지정의로 항여셔 일  
이 이렇케 되었구려 당신으로 말항드리도 아모리너여바린 지식이기로 어엽  
분성각이야 업겟소 그저다 그업는 지식을 보고 나의 잘못할말을 용서항여쥬  
시오 나는 결단코 당신의 전스를 조곰이라도 입밧게 너일리가 업스니 당신도  
조곰이라도 근심마시고 알코잇는 아히를 잘보호항시오 결단코 너입으로 정  
협판에게 당신의 지닌스정을 말홀리업소』

그러나 경주는 조곰도 반가이아지안이항며

『아이고 그런심너는 조곰도 항지마시오 나는 당신덕으로 우리령감에게 말슴  
항여쥬시면 도겟소 마음이 약흔 나갓흔게집으로는 그말을 할슈업스니 제발  
무정흔 당신의 마음으로 그말슴을 쯤셔히 항여쥬시면 대단히 고맙겟습니다』

데스십구회

서병삼은 여러가지로 경주에게 론박과 슈치를 당항엿스나 조곰도 분항여항지  
안코 가장 연연호괴적으로

『나는 조귀에게 리익업는일에 무익호혀를 놀니지안이홀터이니 부인은 처상  
가 부인의 명예와 정협판의 사랑을 영원히 보존항시오 나는 다시는 결단코 부  
인을 괴로이 구지안이홀터이니 아모도록 녀려마시고 몸을 쯤중항여 지너서  
기를 바라오 이서병삼으로 말항여도 서히에서 명예도잇고 지위도잇는 사람  
인고로 나도 너명예를 도라보아서 지각업는 행동은 항지안을 사름이고 쯤는  
부인의 가정상자미를 방히홀리가 업소 이후에 다시는 이리홀일로 부인을 보  
고 조홀리도 업거니와 다시 부인과 만날도 업슬듯항니 부인은 조곰도 근심  
마시오』

항며 서병삼은 슈염을 쓰다드무며

『그리고 나중에 이르러 한마디 말슴항여 들일일이잇소 다른말이안이이라 당신의  
몸도 지금대단히 쇠약항엿슬뿐더러 자제의 이후소성식일일이 대단히어려  
우니 이곳 기쁜산속에서 찬공기를 밧지말고 일쥬일쥬 지너이거던 일괴은  
화흔 지방으로 한번에가셔 치료항는 것이 조홀듯항오니 말슴은 나의 직척으  
로 권고항는 말슴이니 그티로 항시는 것이 조홀듯항오 그러나 부인씨대단실





례을 하였습시다. 녀름오소리되야셔 저방에서는 기다리게소  
향고 이러셔며 다시경조를 향하야

『앗가부터 부인을 나가 녀름오졸나셔 부인얼굴이 상괴 되신모양이니 여괴셔잠  
간 괴운을나리시면 나가몬져가셔 조도록 말씀하오리다』

하며 셔병삼은 문을열고 밧그로 나아간후 경조는지금까지 춤고춤가슴이  
일시에터져 소리쳐나오는 우름을 간신히 치마살을 입에악물어 소리를너지안  
코 치마즈락으로 얼굴을가리우고 한참있더니

하느님々々々 굵어삼히심소사 어린자식정남이와 우리부친을보시고 또는남  
편을위하셔셔 이가련호몸을 도아주소셔 아모리싱각하여도 죄를즈복호출슈업  
습니다. 엇지하면 이죄를즈복하겟습닛가 하느님도 이몸을 불상히여이사 오날  
셔병삼으로하야곰 마음을 다시돌리게하여쥬섯스오니 감스만々이을시다. 그리  
나 엇지하면 녀름입으로 녀름죄를 즈복하리오

셔병삼은 그방을나셔 다시병실에일으러 정옥조를 향하야말하다

『대단히 오리되얏습시다. 이후부터 제제의조섭식일々은 대강말씀을엿쥬어  
두었습시다. 만은 부인씨서는 녀름오심려를 하시느모양이기에 원리 그병의성  
근원인과 병의리치와 꽤복된후에라도 조심할일을 말씀하엿습시다. 그리고  
부인씨셔도 병환이 계시다. 하옵기에 진찰을하야보온즉 다른병환이 안이라



(히스데리)라하는 병이온디 제제의 병으로하야 여러날세치시고 심려하신  
결과로 신테와 신경(神經) 쇠약(衰弱) 하신모양인디 이후부터는 제제의병보  
다 부인의병환이 더욱마음을 쓰셔야하겟습시다. 그러나 녀름일은 덕단골의사  
가나려온다. 하오니 녀름가별노이 말씀안이하여도 관계가업슬듯하야 부인씨  
는 제제할말씀은 안이하엿습시다. 만은 제제의병으로 말씀하면 이후일쥬일  
만지니면 아조평복이될터이니 여괴셔 심여일지니여 혈신차도가잇스후에는  
어디던지 괴후가온화호히변으로가셔셔 치료하는것이 대단조겠다고 부인  
씨도 말씀하엿습시다. 만은 령감씨도 간절이권하는바을시다. 이곳은 산중이  
라 여름동안은 미우조호나 이제츄츄어오면 병인에게는 적당치못호곳이  
나 아모도록썩썩하디방으로 부산이라던지 목포라던지 충원이라던지 남쪽  
디방으로 히변공괴를 마시는것이 병인에게는 그런조호약은업습니다. 그리  
하면 부인씨셔도 병환이 나으실터이오 제제도 소복이속히 될터이니 아모  
도록 그것게하시도록 권고함니다』

정옥조는 셔병삼의천절호말에 심히깃거위하야

『참이러케천절하게 보아주시고 또이후일까지 경계하야쥬시니. 이런 감스  
할데가업습니다. 어린놈이 적이근력이나거던 말씀하신마와갓치 엇더호곳  
이든지 온화호히변으로 다리고가겟습시다』



서병삼은 옷간에 안져있는 유모를 향하여  
 『여보게 지금 마님이 더편방에 계신디 여러날 지쳐서서 근력을 차리지 못하  
 고 계시니 미음이라도 있거든 조곰만 갖다 드리게 하소』  
 하며 다시 정육조를 보며

『부인께서 병환으로 하여 신경과민이 되여 계시니 령감도 아모도록 친절  
 하고 다정히 하여서 부인의 성품을 격동하지 안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조흔듯  
 하오이다 (히스테리)라 하는 병은 조고마흔 말을 드러도 성품이 이러나 병이  
 오니 그런 줄 아시고 지금 말씀엿준 것을 직히 시도록 하십시오』

데오심회

서병삼은 도라갈 벽에 인종야 다른의스에게 두서너가지 지휘를 한 후 정육조와  
 서로 작별하고 의성읍니 지리별장으로 도라가니라 그러나 서병삼과 리경조  
 사이에 닷도든 비밀한스 정은 조곰도 타인으로 하여야 금 의심을 일으키지 안이하  
 였더라

정남의 위티흔 병세가 그이흔날 일으려서는 푸른 하늘에 혼구름한 덩어리가  
 지니간 것갓치 병근이 전혀 업서지고 식욕이 당기여 조로 음식도 츠지나 다만 여  
 러날 동안 병으로 슈척하몸만 쾌복이 되지 못하였더라 정육조와 리경조 두사람

의 김복은 어디다 비하여 말하리오

정씨의 집 단골의스는 과연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 왔는지라 정남에 더흔 병세와  
 서박스의 약 쓴 말을 대강 듯고 또는 일동을 진찰함이 다른 종세는 업고 다만 이후  
 로부터 조섭식이 는디 선불선을 설명할 뿐이라 그러나 정남의 병보다 그모친의  
 얼굴에 병식이 잇슴을 보고 크게 녀려하여 방문을 하여 급히 의성읍니로 사람을  
 보니 약을 가져오게 하니라 정육조는 다시 서병삼의 권고로 남방히 변으로 피접  
 하라던 말을 그의스에게 문의함의 그의스도 또한 그의 견에 더하여 동의를 표하  
 는지라 정육조는 하로라도 일찍이 정남의 몸이 충실하면 삼남지방은 화흔 목  
 포히 변으로 내려가서 조기도 잠간 동안 이 세상 분요할 풍진을 이저바리고 한가  
 이 날을 보려고 조 결단하였더라 그러나 경조와 정남 두사람에게 엿더흔 비창흔 일  
 이 출성할는지 엿지 않나오

서울로부터 내려온 의스는 그날 저녁으로 대흥산성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향하  
 여 올가니라

삼스 일지닌 후에 정남은 방안에 잇기를 실히녀여 밧그로나아가 단이려하는 것  
 을 이리저리 달녀여 방밖게를 녀어보는지안이 하고 정협판의 부부는 그유모를  
 다리고 정남을 달녀리로라 이약이 저약이 향며 웃고 짓거리나 어제서지 고요하고  
 근심으로 지니는 방안이 오날부터 삼춘화가 다시 그방안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정남은점々 날로 쾌복되여가나 도로혀 그모친경조는 더욱々々 쇠약  
 하여간다 정욱조는 가장 그를근심하여 본리도 몸이 쇠약하고 신경과민한사  
 람이 이번에정남의 병으로하여 더욱 쇠약하였스미 어나씨던지 간절이위로하  
 며 하로밤비 정남이가 쾌복되면 은화흔 목포히안(木浦海岸)으로가셔 안히의  
 신앙을 쾌복식이여 전일과갓치 싹싹한가정의 질거움을 회복코조한다 그러나  
 그목포히안이 과연그안히와 그아달에게 정당흔곳이라 일거를는지 아지못하  
 리로다 경조는 서병삼을맛는서 곤난을받은후에 원리쇠약흔몸으로 신경(神經)  
 을 격동흔고로 조괴의스실이 비록루설치는 안이하였스나 정남의 다대흔영향  
 을받아 조곰흔면늘니고 가슴에정충중이 일어나며 더욱이조괴의 지은죄를서  
 로히겁하여 남편의얼굴을 감히바라보지못하며 씨々로 남편은 정다운언스로  
 조괴를 위하여줄씩마다 일비나 근심을더하며 가슴이찌어지는도다 경조는도  
 저히니죄를 조복지안이하면 일々이라도 이세상을 편안히지니지못하리라 하  
 는생각이 더욱심하여 이에 이르러는 그씨에 서병삼이가 마음을들니고 아모말  
 업시 그티로도라간것이 도로혀 원동한다

그러나 경조는스스로 조복할용과가 업스며 다협히남편에게 조복하는괴회를  
 었는다할지라도 그씨에 이르러는 남편이비로소 스실을알고 락심상흔일일을  
 생각함이 이리도하기어렵고 저리도하기난처하다 출하리그씨에 서병삼이와슬

씨에 그괴회를일치말고 남편에게 말흔비되었더면 오날이르려서는 이근심한  
 가지는 밭셔업서지고 나의운명도 결정이되었스리라 생각한다 다시서병삼의  
 이름은 호말만치도 원치안이한다  
 경조는 이근심뿐이안이라 키성씨를 써나셔 다시전라도 목포히변으로 가게됨  
 을 가장스리고 실은생각이 녀두에 이러나더라





쌍옥루 중종

每日申報社編輯部長

鮮于日君

著

增補再刊

# 日鮮大簡牘

○尺牘界의 元祖 且 霸王

定價壹圓二十錢  
郵稅十二錢

每日申報社編輯部長

鮮于日君

著

# 精選八大家

定價七十錢

郵稅十二錢



立公廉 著

# 日語通編

定價壹圓

郵稅十二錢

音學大家 金仁湜 著

# 教科適用 普通唱歌集

實價五十錢

郵稅八錢

數學大家 安一英 著

# 算術問題新解法全書 (分數部)

定價六十錢

郵稅八錢

大正二年六月十日 印刷  
大正二年六月廿日 發行

(附尋早香型)  
(定價金三十五錢)

著者兼發行者 金城北部小安洞十六統八戶 金容俊

印刷者 金城北部礪井洞三十八統一戶

印刷者 金城北部鍾路鉢里洞九統十戶 金翼洙

印刷所 昌文社

發行所 京城北部小安洞十六統八戶

發行所 普及書館

振替口座京城八七二番  
電話一九〇六番

分賣所 京鄉各書舖

不許複製



李海朝君編著

增補  
四刊

獄中花

定價金  
四十錢



京城北部小安洞十六統八月

普及書館發行

